



적금대교(적금도~남도)



남도대교(남도~둔병도)



해오름 언덕



둔병대교(둔병도~조발도)



조화대교(조발도~화양면 장수리)

# 여수~고흥 섬·바다 가르며 명품 해양드라이브 코스 떴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도·연륙교가 전면 개통된 이후 차량과 이용객이 몰리면서 새로운 남해안 관광지로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오후 3시부터 여수 화양면에서 고흥 영남면에 이르는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도로 17km 구간이 모두 개통됐다.

여수~고흥 연륙교가 완전 개통된 주말과 휴일 2만명이 이용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여수 조발도·남도·둔병도·적금도 등 4개 섬을 5개 다리로 연결한 화양~적금 도로는 전면 개통된 지난 달 28일 오후 2450대의 차량이 몰렸다. 토요일인 29일에는 8294대가 찾았으며, 일요일인 1일에는 1만944대가 이용해 자·정체 현상이 반복됐다.

이처럼 개통 후 첫 주말을 맞아 시민·관광객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물동량과 도로

폭 등을 고려해 설정한 1일 설계교통량 7142대를 초과했다.

다리가 연결됨에 따라 여수(화양)에서 고흥(영남)까지 1시간4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고흥의 푸른 바다와 섬을 감상할 수 있어 이곳을 찾는 시민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총 8620억 원이 투입된 여수~고흥을 잇는 연륙·연도교 7곳 중 돌산·화태(2.98km) 3개 구간은 먼저 개통됐다. 지난 달 28일 개통된 화양 안포~장수(7.3km), 화양~조발(2.05km), 조발~남도(3.90km), 남도~적금(3.64km) 등 화양~적금 도로는 3908억원이 투입됐다.

교량이 개통되면서 여수에서 고흥까지 거리도 84km에서 30km로 54km가 단축됐다.

화양~적금 5개 다리 개통 첫 주말·휴일 차량 2만대 몰려 남해안관광 활성화...여수시 편의시설·휴게소 설치 검토

여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 2개 등 편의시설 확충과 휴게소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영호 도로계획팀장은 "일부 노점상들의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함께 교통량 등을 검토해 휴게소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개통과 함께 여수 화태에서 월호·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4개 연도교 건설을 위한 설계비 200억 원도 올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돼 11개 연륙·연도교(일례면 브릿지)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5277억 원으로 오는 2020년 턴키방식(일괄수주계약)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화태·백야 간 연도교가 모두 완공되면 고흥 영남면에서 여수 돌산읍까지 기존 육로로 2시간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35분으로 1시간 넘게 단축된다.

여수 한려해상공원과 고흥 우주센터 간 최단거리 확보로 불류비용 절감은 물론 아름다운 여수 고흥의 해안·섬 관광지 활성화도 기대된다.

예산 확보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섬·바다 등 천연 해양자원을 보유한 여수와 고흥 등 남해안 관광 명소를 잇는 새로운 신 성장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태·월호·개도·제도·백야 등 4개의 연도교를 건설해 여수시 남면 화태도와 화정

면 백야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반영됐지만, 지난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화태·백야 연도교와 여수 고흥을 잇는 다리 건설은 여수지역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다.

여수시는 연도교 건설로 돌산읍과 화정면 간 국도 77호선이 이어질 경우 교통량이 분산돼 돌산지역은 물론 여수 동부권 교통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돌산지역은 섬 특성상 한 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등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 교통체증이 빈번했다.

국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은 고흥에서 여수, 경남 남해, 통영, 거제를 잇는 신 성장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를 감상할 수 있는 명품 해양관광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3년 국도건설 사업에 반영돼 최종 개통된 여수~고흥 간 7개 연륙·연도교의 가치와 시너지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와 시민들이 함께 이룬 여수~고흥을 잇는 다리 개통과 예산확보 성과로 여수는 물론 전남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은 아름다운 섬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효과 등이 더해져 섬 주민 생활면의 향상, 지역 균형발전, 국내 경제 활성화, 2026 세계섬박람회 개최 기반 조성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17년 더 쓸 수 있는데...” 만흥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고심

여수시, 주민과 협의 나서

여수시가 만흥매립장의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총 매립용량의 68%를 사용한 '만흥매립장'의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매립장 인근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는 만흥매립장 주변 주민과 한 "올해 3월까지 매립장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존중하지만, 신규 매립장 조성 비용과 신규대상지 선정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연장장 협의 중이다.

여수시는 앞으로 17년간 더 사용 가능한 매립장을 찾아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고 판단,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

만흥매립장은 1994년 12월에 폐기물 처리 매립용량 325만㎥로 승인 받아 1997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현재 220만㎥가 매립돼 매립용량의 68%를 사용했다. 앞으로 105만㎥가 더 매립 가능해 2037년까지 사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흥매립장은 당초 2020년까지 사용을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2011년 소각시설이 여수시에 들어 서면서 쓰레기 매립량이 크게 줄어 그만큼 사용 연한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여수시는 올해부터 자원순환 목적의 '폐기물 사전신고제도'와 '폐목재 반입 제한 제도'를 시행, 반입 쓰레기를 더 줄였다.

이에 따라 만흥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지난해 하루 평균 158t에서 올해 69t으로 56% 감소, 매립 가능 기간이 2037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수시는 만흥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총 매립용량의 68%를 사용한 여수 만흥매립장. <여수시 제공>

운영하기 위해 매일 휴묘기를 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이송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3월 이후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다면 도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로 대란이 일어나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에 '전남권역 재활병원' 들어선다

458억 들여 2022년 완공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전남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여수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시장과 전남대학교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권역 재활병원' 실시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건축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이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여수시는 전남대학교 및 전남대병원과 2차례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종합해 전달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척수손상·뇌손상·근골격계·소아 재활 전문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한다.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총사업비 458억 원을 투입해 전체면적 1만3650㎡, 지하 1층~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지어진다. 올해 10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 착공해 2022년 11월 완공될



'전남권역 재활병원' 조감도.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전남권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민선7기 들어서 수준 높은 의료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270억 원에서 458억 원으로 늘렸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사업비도 늘어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은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의료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공영·유료 노상주차장 5곳 정오~오후 2시 2시간 무료

국립공원 오동도를 제외한 여수시 모든 공영주차장과 유료 노상주차장 5곳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점심 두 시간 동안 유료 노상주차장 5곳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노상주차장은 해안로, 충무동 여수농협 앞, 여수우체국 앞, 이순신광장 뒤, 해양공원 앞 주차장이다.

그동안 유료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회전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최초 30분을 무료로 하고 이후 30분에 5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점심 2시간 주차장 무료 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의료광고심의필 제 2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